

'커피의 고향' 중남미 커피 생산량 증대 이끈다

농진청, 엘살바도르서 커피 연례 평가회 개최... 중남미 9개 콜파시 회원국 등 참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중남미 국가의 커피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커피 연례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어 30일(현지 시간)에는 관련 행사로 커피 공개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커피 과제 평가회에는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9개 회원국 연구 책임자와 국제열대농업 연구교육센터(CATIE), 엘살바도르 커피연구소(ISC) 연구원 등 중남미 커피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콜파시는 농진청과 중남미 1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농업 R&D 협의체다. 중남미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현지 맞춤형 기술을 전파하는 개발 협력사

업을 추진 중이다. CATIE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농업, 관리 보존,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구하는 국제기구다. 농진청과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남미의 커피 전정기술 도입 및 신제품 선별 과제, 카카오 재배 생산성 향상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참석자들은 중남미 소농들의

커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정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또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1단계(2020~2023년) 연구 성과에서 확인한 전정 기술 도입 효과를 평가하며, 향후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타진했다. CATIE 룰란드 세르다 박사는 "이번 연례 평가회를 통해 각국 연구 성과를 공유한 점과 커피 전정 기술을 도입해 중남미 커피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 사례가 발표돼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례 평가회가 지속 가능한 커피 연구의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농업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30일 열리는 커피 포럼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커피 유전적 개량 실험에 관한 국제적 사례가 발표된다. 주요 주제로 ΔPROMECAFE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커피 유전 다양성 및 유전 개량 전망 Δ화학적 마커를 통한 아라비카 커피 원두의 가공 과정 식별 등을 다룬다.

이경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중남미 커피 소농들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피 공개 토론회(포럼)를 통해 국제적 커피 연구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 발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중남미 커피 소농들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피 공개 토론회(포럼)를 통해 국제적 커피 연구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 발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지난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활기찬 축제장서 새만금의 미래와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지난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2016~20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찬 축제 현장 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새만금 산업단지과 미래 첨단기업과 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찬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잔터, 공연

(버블쇼, 어린이 뮤지컬)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 1,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으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기림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자연의 세 축으로 표현하며 밀도 있는 묘사로 가족 간의 사랑과 새만금의 발전을 담았다. 최우수상(전북자치도지사상)은 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표현한 최지우 어린이 가족(군산시 군산금빛초 6)이 수상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11곳 안전교육

취급 사업장 311곳 안전교육

전북환경청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영업허가 사업장 3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날 교육에서는 전북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환경청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를 토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취급시설 검사업무를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정기·설치검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를 통해 사업장 관리자의 취급시설 적합 관리 방안을 교육했다.

전북환경청은 참석자들에게 화학물질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정 내용 및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전북 안전 케이'를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육기 기자

'새만금·군산지역 주요 발전사 간담회' 개최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전북 전력공급 현황·ESS 설비견학 등 상호 정보교류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처장 박정호)는 29일 새만금·군산지역 주요발전사를 대상으로, 김제 ESS 스테이션(김산동)에서 전북 전력공급 현황 및 ESS 설비견학 등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전력거래소와 군산복합·육상태양광 등 8개 발전사 담당 실무자 20명이 참석하여 전북지역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사업을 논의하였다.

전북지역은 전력계통 특성상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송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만금·군산 지역 발전사들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상호 예방정비 계획 및



주요 보강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전력 전북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약 300MW)는 전력계통의 잉여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ESS장치를 활용,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발전제약 완화를 통한 전력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김육기 기자

김동섭 LH전북본부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김동섭 LH 전북지역본부장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양육하는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문화, 예술계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지역 임대주택 단지내 33개의 어린이집,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6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임대주택단지에 아동특화 프로그램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LH 행복한 밥상을 관내 19개 단지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아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 및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익산배산, 전주효천 등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입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플랫폼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혁신10, 군산비정 임대주택의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아동중심 입주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김육기 기자

전은 목련회, '알록달록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전주 서신지역아동센터 일대에서 '알록달록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여 연중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화사한 벽화를 통해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목련회는 서신지역아동센터 임대 환경개선을 위해 2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이날 목련회 회원 및 자녀 50여명은 그동안 어둡고 관리가 어려웠던 골목길 담벼락을 청소하고 밑그림을 그린 후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며 화사하게 바뀐 골목길에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서신지역아동센터 송연진 센터장은 "벽화를 그리는 모든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빠른 시간 안에 아름다운 벽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목련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회장은 "어두웠던 골목길을 회원들이 직접 변화시킬 수 있어 뜻깊었고,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전북은행 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